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과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방향

일시 2025. 5. 29. (목) 14:00 - 16:30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과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방향

❖ 일시 : 2025. 5. 29(목), 14:00~16:30

❖ 장소 :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 프로그램

사회 : 박원순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시 간	세부 일정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사	
	환영사	▶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기념사진 촬영	
14:20 ~ 14:35	주제발표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 박진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4:35 ~ 14:45	휴식	
14:45 ~ 16:00	학회별 핵심 어젠다 발표	좌장 : 정선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변화의 시대, 영유아정책 관련 핵심 5대 어젠다 ▶ 김진욱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 김형모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 배지희 회장(한국육아지원학회) ▶ 박수경 부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 신나나 부회장(한국아동학회)
16:00 ~ 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 ~	폐회	

CONTENTS

환영사

- ▶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

- ▶ 박진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

학회별 핵심 어젠다 발표

변화의 시대, 영유아정책 관련 핵심 5대 어젠다

- ▶ 김진욱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19
- ▶ 김형모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22
- ▶ 배지희 회장(한국육아지원학회) 25
- ▶ 박수경 부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30
- ▶ 신나나 부회장(한국아동학회) 33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록이 짙어지는 시기에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의 삶을 함께 주목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계절의 활력을 담은 오늘의 심포지엄이 육아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영유아와 그 가족의 삶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국가 수준의 주요 통계자료를 정책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영유아기의 인구 변화, 건강 및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사교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예정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교육·보육 정책과 저출생 대응 과제를 함께 다루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코로나 세대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 등 다양한 실증조사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초자료와 국가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그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계의 전문성과 통찰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유아 정책의 핵심 5대 어젠다를 제안하는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유아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각기 다른 관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어젠다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정책 설계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결합해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향후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별 발표 이후에는 전체 토론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폭넓게 공유하며 정책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바쁜 일정에도 발표를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진아 박사님, 그리고 영유아정책의 핵심 어젠다를 제의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한국보육지원학회 김진욱 회장님, 한국아동권리학회 김형모 회장님, 한국육아지원학회 배지희 회장님, 한국유아교육학회 박수경 부회장님, 한국아동학회 신나나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진행해주신 박원순 박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정선아 교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우리 사회 영유아 정책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주제발표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

박진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



2025.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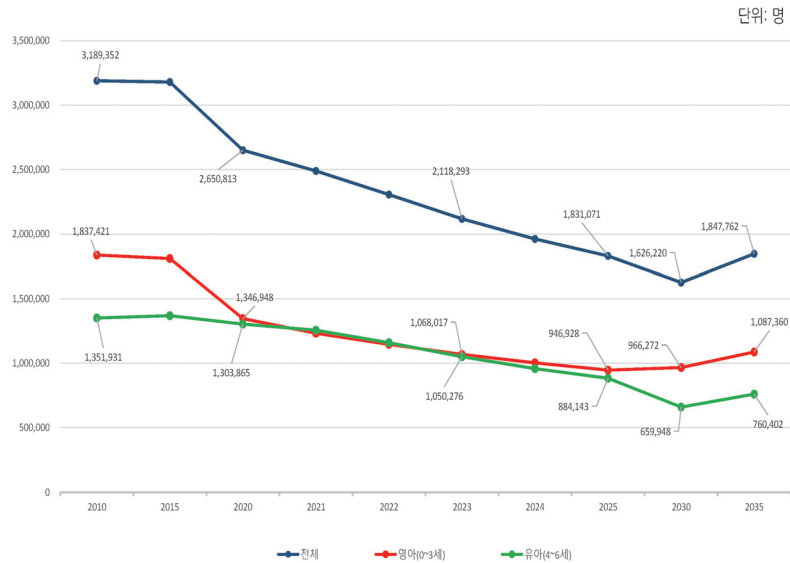
박진아 연구위원

1부

영유아 인구 및 건강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도별 영유아 추계인구(2010~20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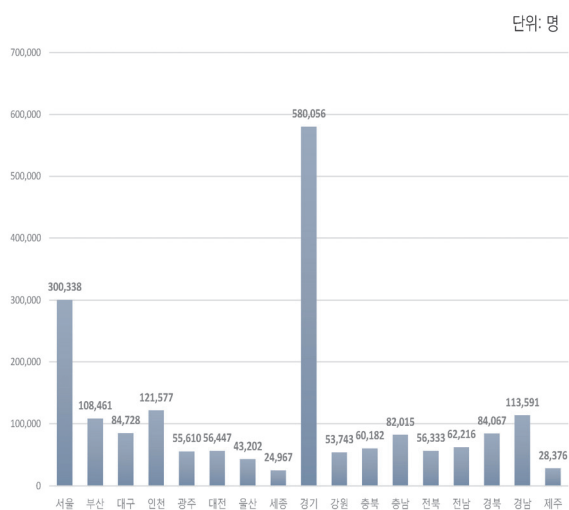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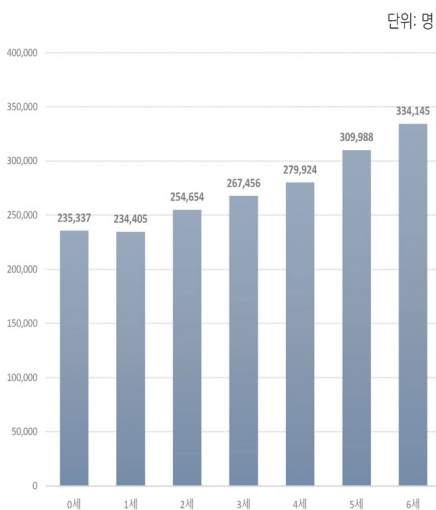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인구,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3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0~6세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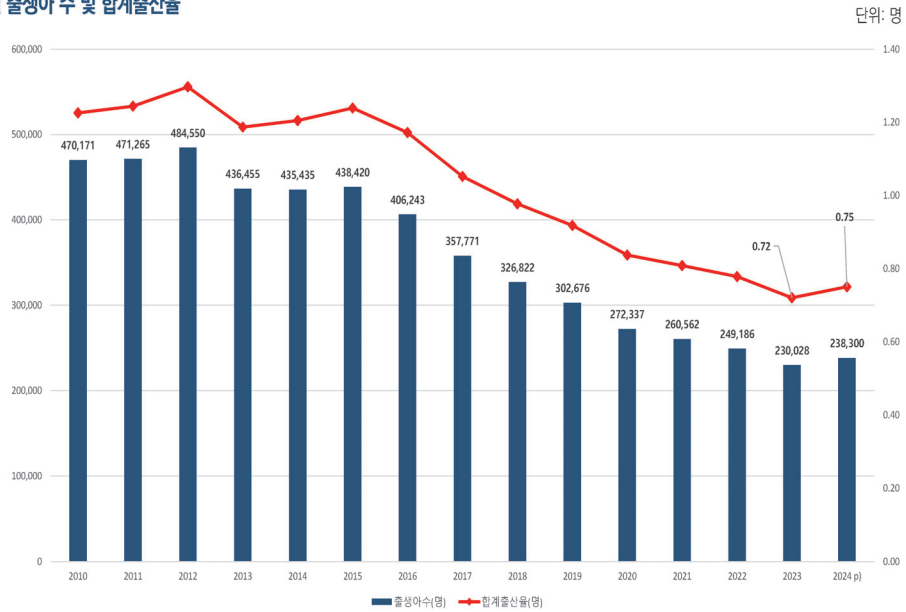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인구,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4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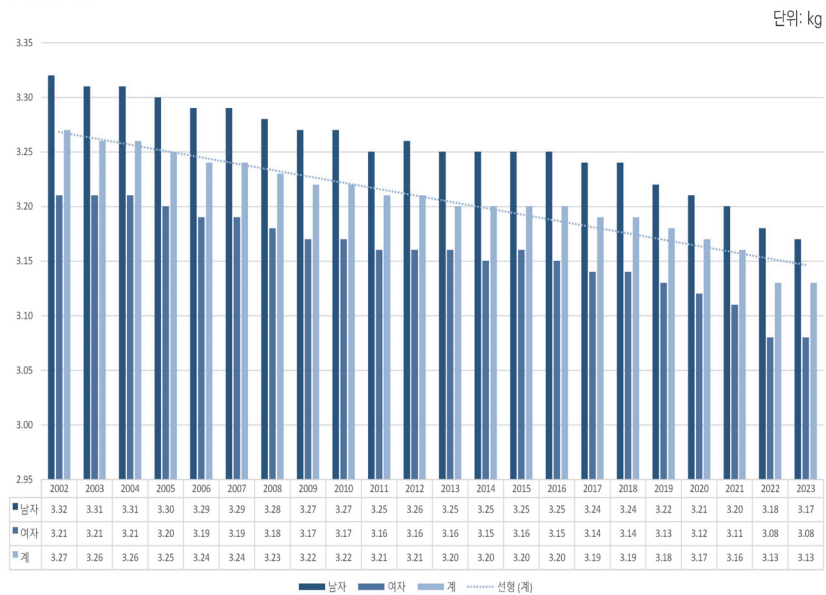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인구,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등.

5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도별 출생 시 평균 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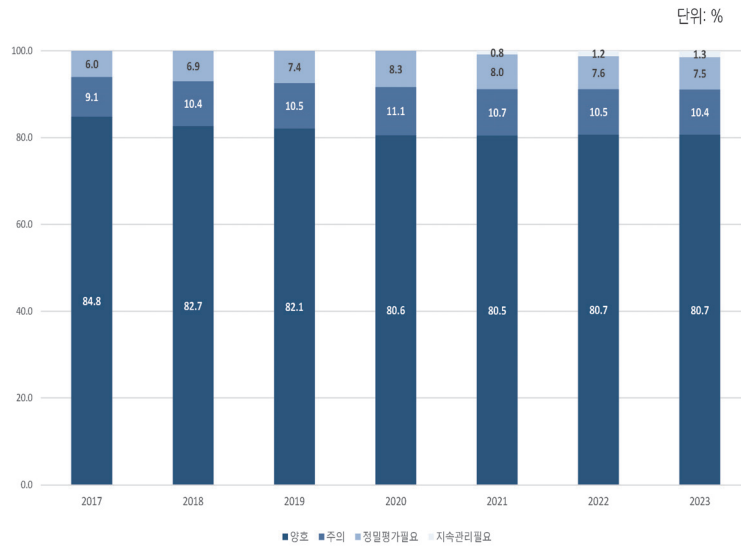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인구, 인구동향조사, 출생.

6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도별 영유아건강검진 종합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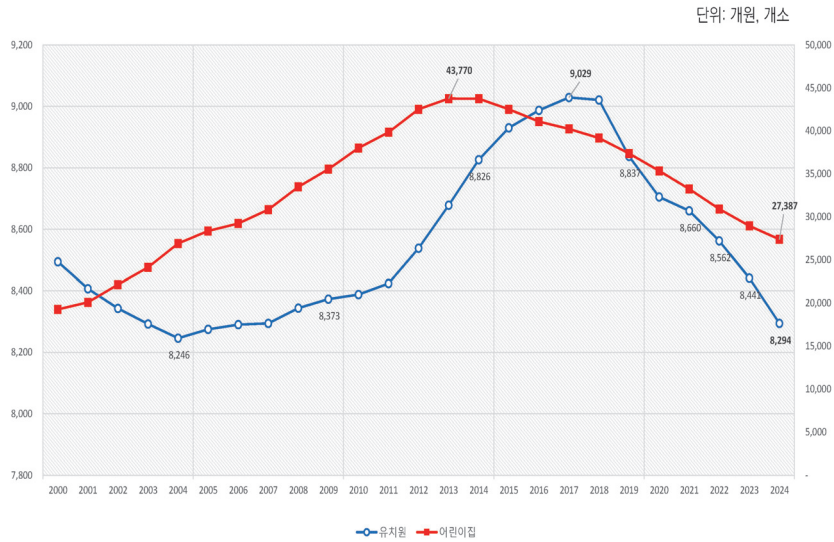


2부

영유아 교육 · 보육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 수 추이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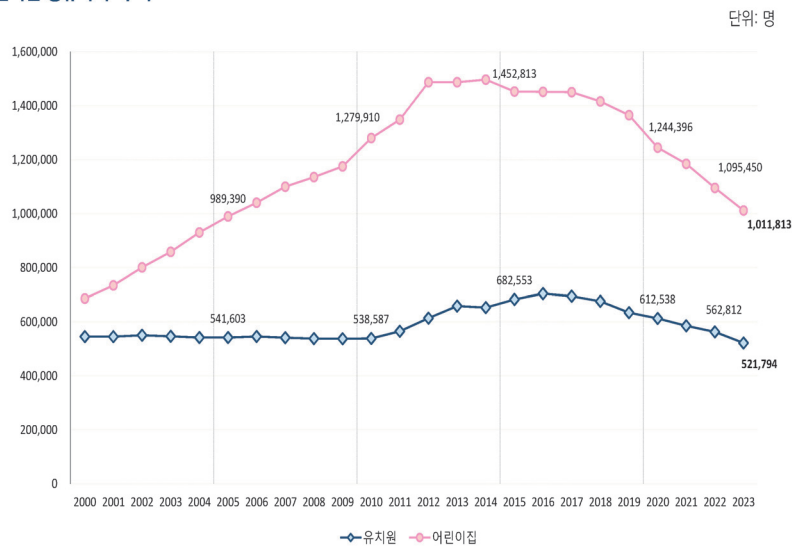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2023)/교육부(2024). 보육통계(전년도 12월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

9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수 추이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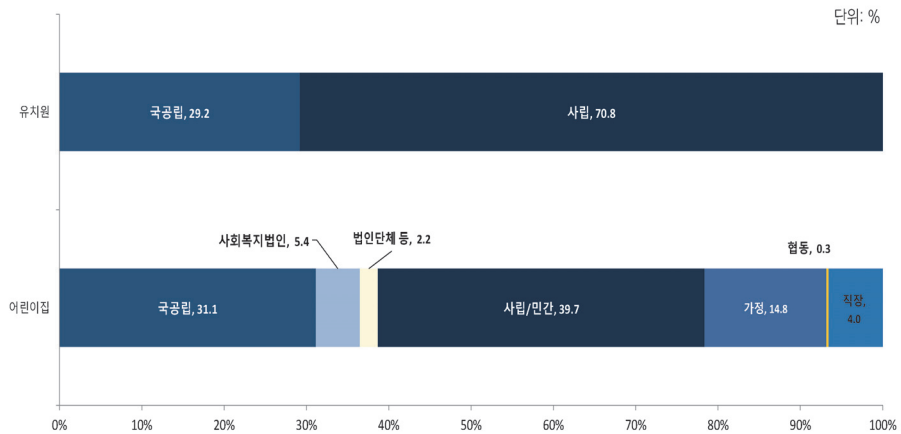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2023)/교육부(2024). 보육통계(전년도 12월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

10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비중(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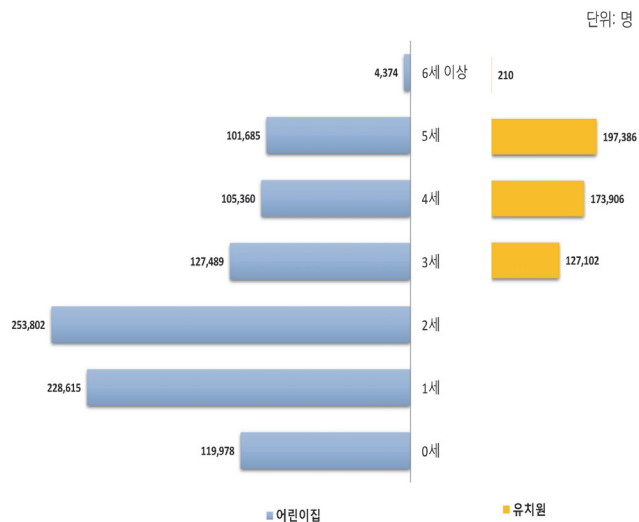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2024년 4월 1일 기준).

2) 교육부(2025). 보육통계(2024년 12월말 기준).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수(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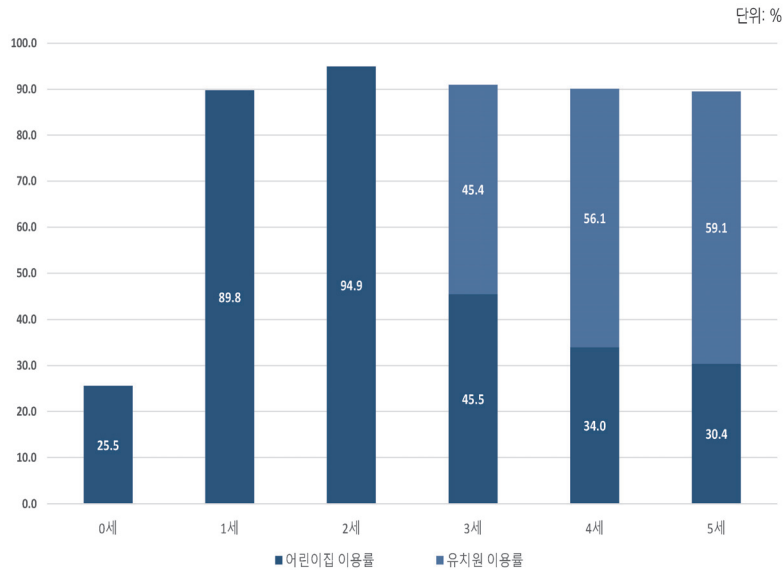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2024년 4월 1일 기준).

2) 교육부(2025). 보육통계(2024년 12월말 기준).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비율(2024년)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2024년 4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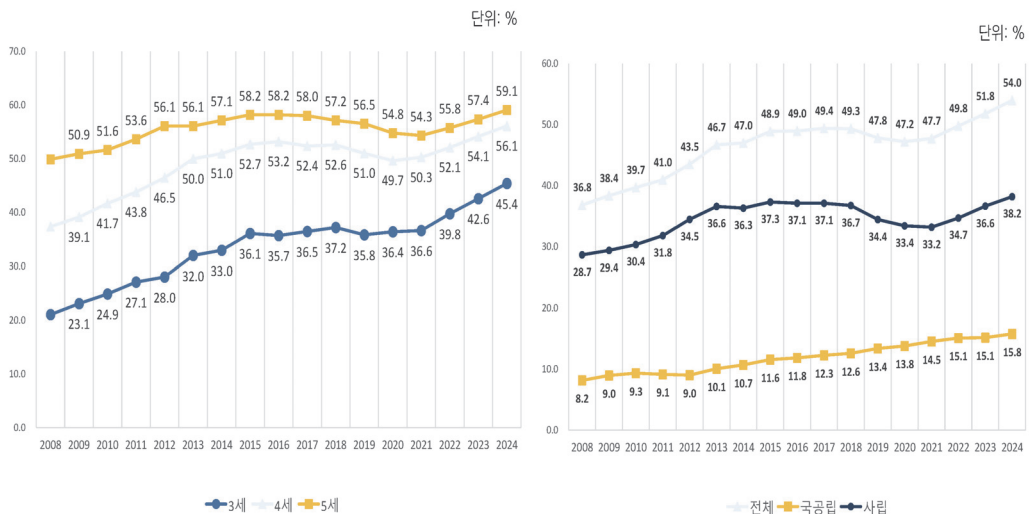
2) 교육부(2025). 보육통계(2024년 12월말 기준).



13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도별 유치원 취원을 추이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연령별 학생 수.

2)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보는 한국 교육,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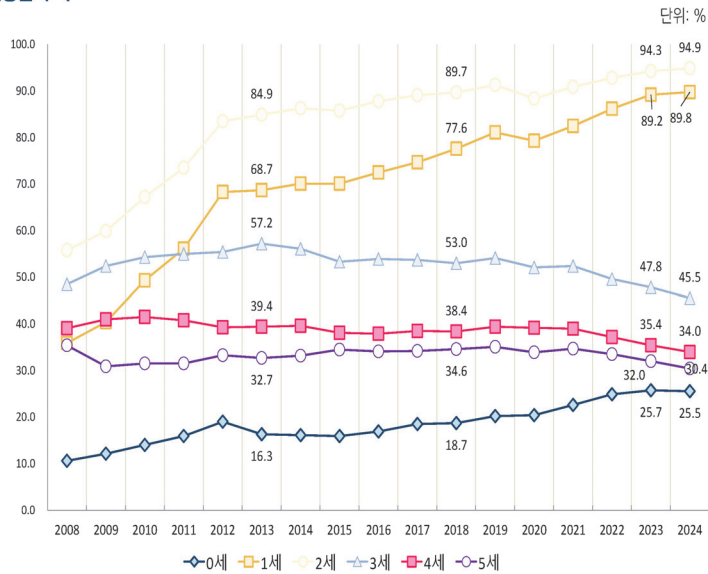
3)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14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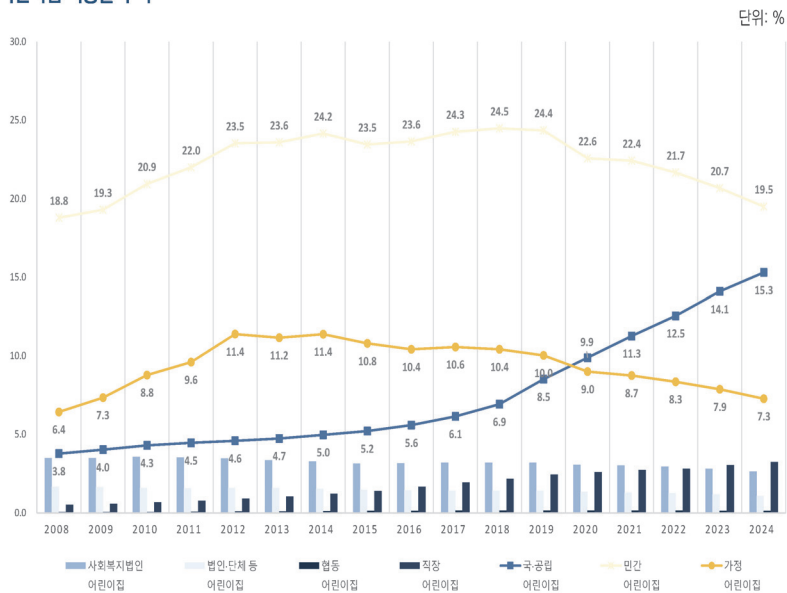


자료: 1) 보건복지부(~2023)/교육부(2024). 보육통계(전년도 12월말 기준).

2)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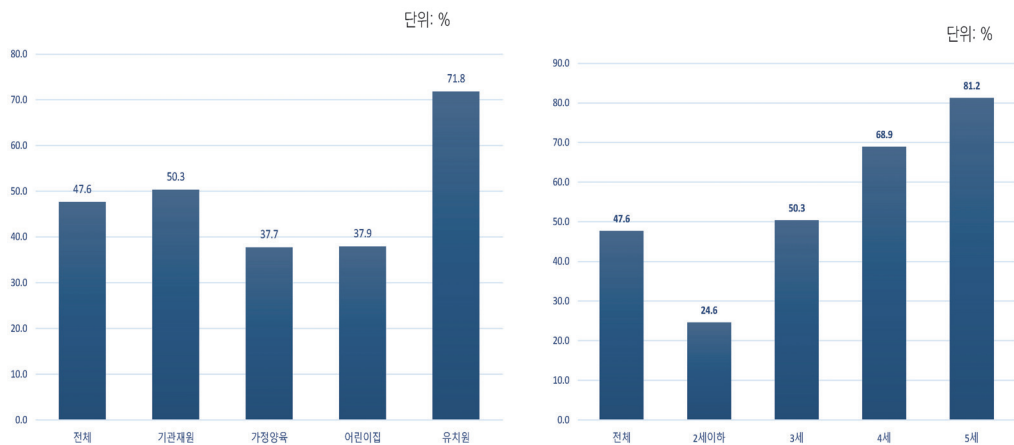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3)/교육부(2024). 보육통계(전년도 12월말 기준).

3부

영유아 사교육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기관유형별/연령별 사교육 참여율(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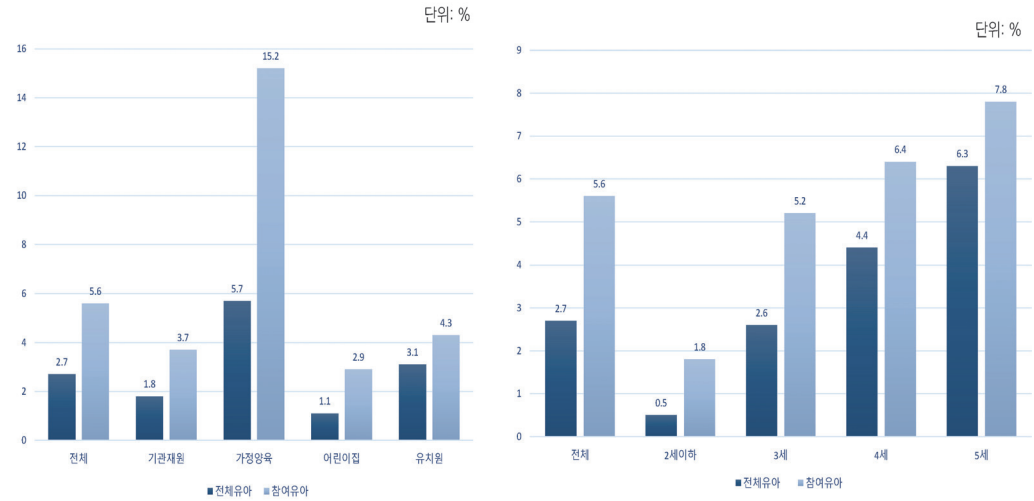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7.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기관유형별/연령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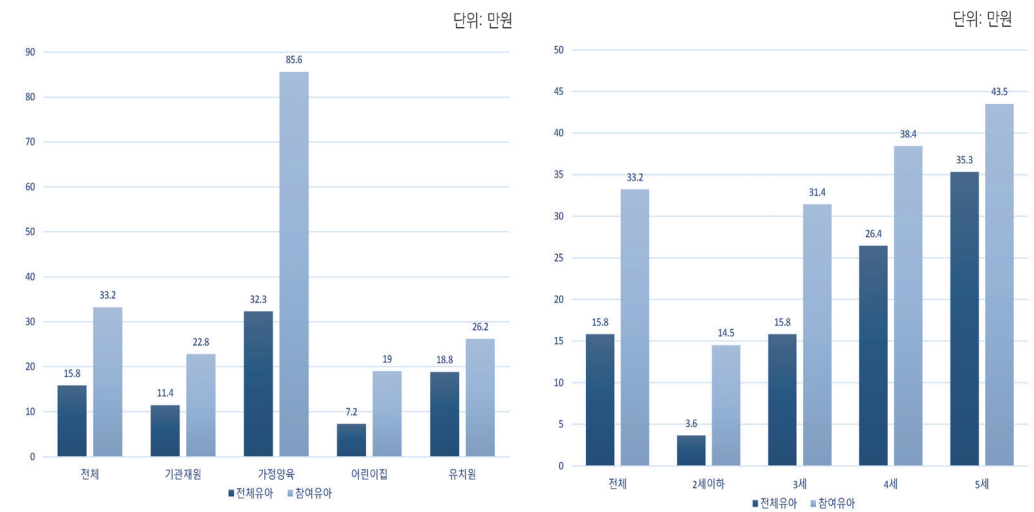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6.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기관유형별/연령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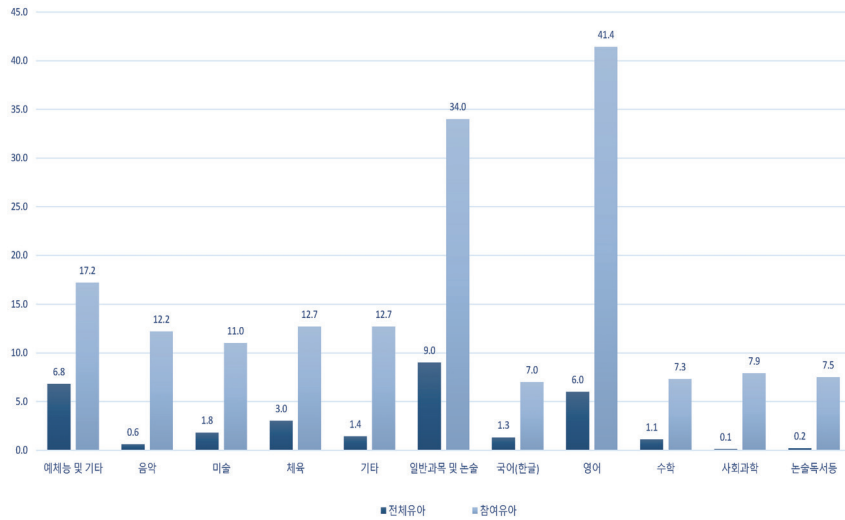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7.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사교육 종류에 따른 월평균 비용(2024년)

단위: 만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8.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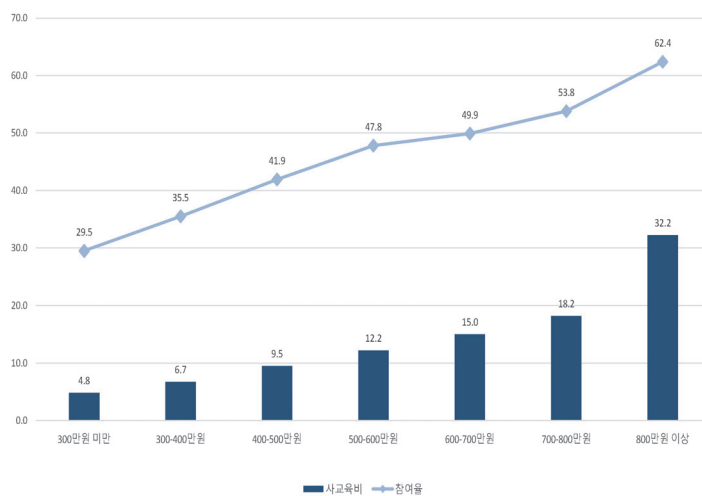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21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4년)

단위: %, 만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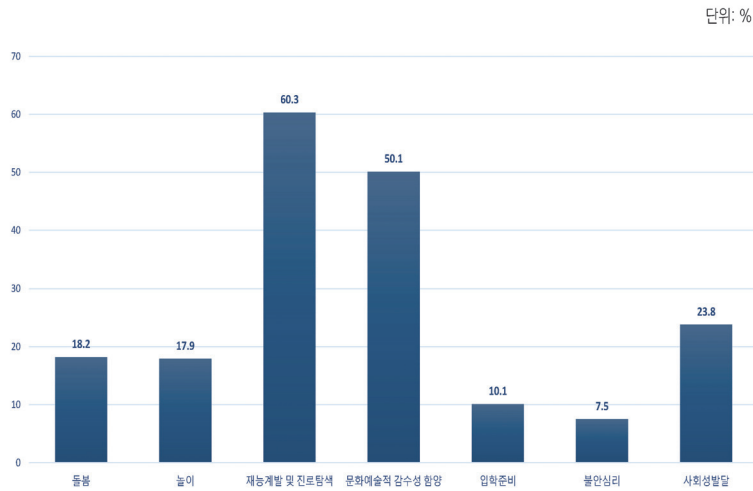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육아정책연구소

22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 수강 목적(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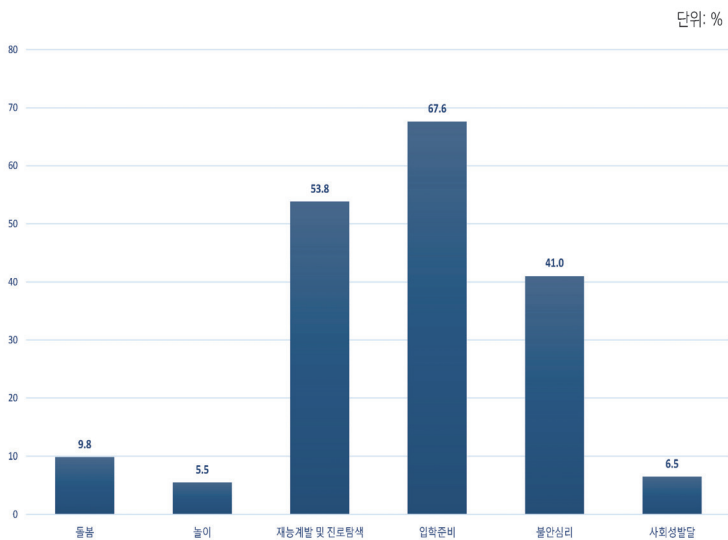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9.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일반과목 및 논술 사교육 수강 목적(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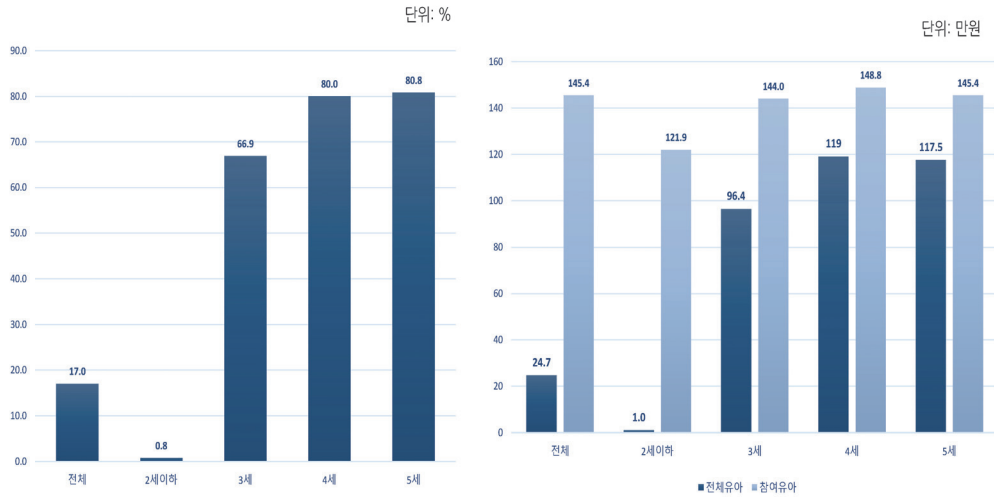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8.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가정양육 유아 기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참여율 및 사교육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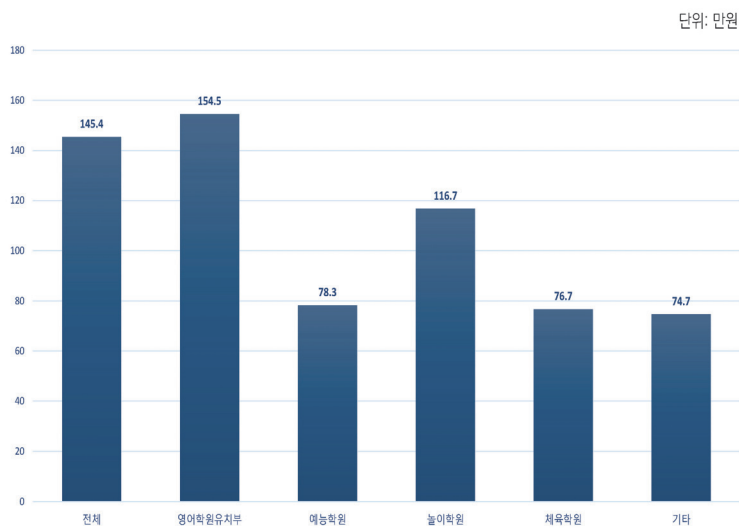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10.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별 참여유아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2024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별첨2)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p. 10.

주: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감사합니다



학회별 핵심 어젠다 발표

변화의 시대,
영유아정책 관련
핵심 5대 어젠다

- ▶ 김진욱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 ▶ 김형모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 ▶ 배지희 회장(한국육아지원학회)
- ▶ 박수경 부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 ▶ 신내나 부회장(한국아동학회)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

김진욱 회장 | 한국보육지원학회

영유아가 가정환경,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인종, 종교 등과 관계없이

적어도 생애초기 6년 동안

최적의 물리적 환경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교사로부터

최선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

어젠다 1: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생활·학습 공간 구축

• 근거

-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학교, 병원, 군대 등과 같은 관리형 건축 설계

• 정책 설계 방향

- 신경건축학, 공간디자인 등 건축과 공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유아학교에 대한 창의적이고 안전한 교육공간 설계
-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환경을 '제3의 교사'로 간주하여 자연광, 개방형 구조, 실내외 연계 공간을 강조

어젠다 2: 균형 잡힌 영양과 행복한 식생활을 위한 급식 혁신

• 근거

- 현재의 급식에서 영유아 발달, 질병(알러지, 아토피 등), 종교(이슬람:돼지고기, 힌두:소고기 등)를 고려한 세밀한 식단 필요

- 간편조리 식품 지양하고 최상의 식재료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과 건강한 음료(보리차 등) 제공
- 영양분 섭취나 식습관 형성의 시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급식 문화 요구

• 정책 설계 방향

- 지역 단위로 전문 급식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식단, 개별적 요구가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대체 식단 및 균형있는 식단 제공
- 급식시간 대폭 확대 : 급식 시간은 단순한 영양분 섭취의 시간이 아님. 영유아가 오감을 동시에 사용하여 세계와 만나는 유일한 시간으로 충분히 즐기며 또래와 즐겁게 음식을 향유할 수 있는 급식 문화 형성

어젠다 3: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최고의 교사 확보 및 지원

• 근거

- 생애 초기 만난 최고의 영유아교사는 향후 영유아의 행복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비용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함.

• 정책 설계 방향

-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모든 영유아교사가 석사학위 이상을 받도록 법제화. 연구기반 교육과정 4년과 1년의 실습을 통해 인문학·과학 소양과 실천역량을 두루 갖춘 교사 양성
- 교육기간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임금체계 도입하여 유능한 인재 유인
- 70년대 핀란드 모든 교사 석사학위 이상 학위 법제화 통한 교육혁신
- 70년대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인재 영입을 위해 서울대학교수 연봉 3배

어젠다 4: 영유아 권리 중심 교육

• 근거

- 저출산 정책의 기조하에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요구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결과 초래. 학부모의 요구와 영유아의 권리가 상충
- 지나친 사교육 요구로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취지 훼손
- 발달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긴급 중재가 요구됨.

• 정책 설계 방향

- 놀이충분권 개념 도입하여 마음껏 놀이하며 온몸으로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경험의 기회 제공
- 방과후 과정 내 학습 중심 사교육 프로그램 법적 제한
- 금지 대상 예시: 초등선행 학습(한글 떼기, 숫자 연산), 외국어 조기교육, 코딩학습 등
- 허용 범위: 예술, 신체, 감각탐색 등 유희·놀이 중심 활동
- 영유아학교 내에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교사, 혹은 놀이치료사를 배치하여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중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어젠다 5: 초등교육 → 영유아교육에서 영유아교육 → 초등교육

• 근거

-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전국에 약 3만 7천 개의 영유아학교(가칭)가 설립되고, 36만 명의 교원이 150만 명의 학생, 300만 명의 학부모와 함께 거대한 영유아교육 공동체를 이루게 됨.
- 기존에서는 초등학교의 교육체계, 철학, 사상이 중심이 되고 영유아교육계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음.

• 정책 설계 방향

- 영유아교육은 향후 2030세대의 학부모들과 함께, 가장 미래 세대인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임.
- 또한 미래지향적인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험들이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일어날 것임.
- 선도적인 영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에도 스며들어 기존 초·중등 교육을 역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전인할 것으로 기대됨.
-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정책과 아동의 권리

김형모 회장 | 한국아동권리학회

어젠다: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영유아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영유아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
-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관점을 넘어서, 존중과 참여의 주체로 확대되어야 함.
- 특히 영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모든 발달의 기초로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아동의 전 생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UNICEF(2013)는 0~5세 생애 초기의 권리 보장이 아동의 건강, 학업 성취, 사회 통합 능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고,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박현선(2019)은 우리나라 영유아정책이 여전히 보호자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주체적 권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신은수(2020)는 생애 초기 권리 보장이 국가 인권 수준의 척도이자, 사회정의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근거: 우리나라 현황과 선행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모든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기는 발달적 특성상 자신을 표현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함을 강조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와 제12조는 생명과 발달, 그리고 아동의 의견 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무상보육, 누리과정,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특히 농어촌, 저소득층,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보육 접근성과 질 모두에서 격차가 심각함.
-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과 전문성은 아동권리 실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영유아정책 설계 시 자주 간과되는 요소임.

□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정책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권대봉·이정옥(2021)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여전히 영유아를 수동적 수혜자로만 인식하며, 발달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정익중(2018)은 아동권리 실현의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현장의 권리 감수성 부족과 참여 구조의 부재를 들었음.
- 김지연 외(2020)는 보육교사와 정책 담당자의 권리 인식 제고와 함께, 정책 설계 시 아동권리 관점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윤지혜 외(2023)는 유보통합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지 않으면, 행정 편의적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 정책 설계 방향: 영유아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1) 권리 기반 정책 전환

- 모든 영유아정책은 아동을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과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중심으로 정책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정책의 평가 체계도 아동의 권리 기준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함.
- 김지연 외(2020)는 정책 평가에 아동의 권리 반영 지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정익중(2018)은 권리 중심 설계가 아동의 발달권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입증하였음.

(2) 보편성과 형평성 확보

- 영유아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간 및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장애 영유아, 이주배경가정의 아동,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등에 대해 차등 지원이 아닌 형평성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조민희(2022)는 소외계층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이 낮으며, 이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권대봉·이정옥(2021)은 형평성 없는 서비스 제공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3) 참여권의 실질화

- 영유아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보육교사, 아동권리 전문가 등이 아동을 대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리참여’ 시스템(옵브스퍼슨 등)이 필요함.
-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서 영유아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신은수(2020)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대리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박현선(2019)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에 있어 영유아의 관점이 배제된 설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였음.

(4) 통합적 접근

- 영유아 보육, 영유아 교육, 복지, 보건의 연계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유보통합 정책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 권리 중심의 통합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함.
- 윤지혜 외(2023)는 유보통합이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영유아의 권리 실현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정익중(2018)은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과 교육의 연계, 건강관리와 심리정서 지원이 통합된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참고문헌

- 권대봉·이정욱(2021). 보육정책의 권리 기반 접근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22(1), 45-67.
- 김지연 외(2022).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본 보육 정책 개선 방안. 아동복지연구 38(2), 89-112.
- 박현선(2019). 영유아 정책의 권리 관점 비판. 보육정책연구 15(3), 123-140.
- 신은수(2020). 아동의 참여권과 정책 설계. 아동권리포럼 10(1), 55-78.
- 윤지혜 외(2023). 유보통합의 아동 중심 철학 정립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47(1), 33-58.
- 정익중(2018). UNCRC에 기반한 아동 정책 평가. 사회복지정책 45(4), 201-225.
- 조민희(2022). 소외계층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2), 150-172.
- UNICEF(2013).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right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영유아정책 관련 5대 어젠다

배지희 회장 | 한국육아지원학회

어젠다 1: 놀이 중심 영유아교육

• 근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실현을 강조하였음.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이 유아의 전인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놀이 중심 교육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아·놀이 중심 교육이 영유아교육현장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의 확장이 필요함.

• 정책 설계 방향

1) 교사 전문성 및 인식 개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연구 모임 활성화, 놀이 중심 우수 교육 사례 공유를 위한 플랫폼 다양화, 지역별 워크숍 운영,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사 간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 지원

2) 교육환경 개선

충분한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한 일과 운영 개편, 조기·특기교육 운영으로 인해 놀이 시간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영유아들의 탐색적 놀이가 허용되는 실내외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공간 설계

3)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놀이 중심 영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방법 및 내용 다양화,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탐방 및 체험형 놀이 활동 확대

어젠다 2: 영유아 중심의 육아 정책

• 근거

영유아교육 및 육아 정책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목표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함. 저출생 해소를 위한 방안,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교육 및 육아 정책이 수립·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에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이 고려되어야 함.

영유아기의 발달은 가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주양육자가 제공하는 환경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영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지 않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육아휴직 등 현존하는 가정 돌봄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관 중심의 돌봄과 교육이 가정 돌봄 기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기관 돌봄과 가정 돌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정책 설계 방향

1) 가정 돌봄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영유아기 부모 지원 조항 명시 및 예산 확보, 기업과 연계한 육아휴직 활성화 캠페인,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근무 시간 탄력적 운영, 가정 돌봄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관 돌봄과 가정 돌봄의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캠페인, 기관 중심의 연장보육 참여 기준 재고

2) 부모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시스템 마련

가정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 자조 모임 및 커뮤니티 활성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이 필요한 가정 대상 방문형 서비스 확대

3) 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양육 정보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육아 상담 서비스 다각화

어젠다 3: 유보통합과 교원의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 근거

영유아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은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와 동시에 영유아교사의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유보통합 정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교사교육과정의 개선 및 질적 향상, 교육 연한 상향 조정, 통합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관련 정책이 현실화되고 현장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교사의 소진과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교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무리한 요구와 반복적 민원,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대응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정책 설계 방향

1)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만족도 제고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기관 간·지역 간 격차 해소, 대체교사 제도 확대, 교직 선호도 제고를 위한 교원 정책 개선

2) 조직 중심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기관 내 혹은 지역 내 민원 전담 인력 배치, 민원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단계별 절차 마련, 교권 보호 및 처우 관련 조항 구체화, 민원 대응 관련 교육청 지침 구축 및 예산 지원 근거 확보

3) 교권 보호 조치 강화 및 협력 문화 조성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학부모 연수 체계화, 민원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어젠다 4: 영유아교육기관-가정-지역사회 협력

• 근거

영유아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며, 기관-가정-지역사회 간 협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이 됨.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회가 협력하고 연대하여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배움이 학교의 담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며 실제 삶으로 연결되도록 모두가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정책 설계 방향

1)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기반한 통합적 육아 환경 조성, 지역 내 영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 기반 돌봄 육아 인프라 구축

2) 학부모 중심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부모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 문화 조성,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산

3) 가정-기관-지역사회 간 공동 양육 책임 문화 확산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 양육 책임 문화 확산을 위한 시스템 마련

어젠다 5: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 (소인수 학급 지원 정책)

• 근거

저출생 현상 지속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소규모 영유아교육기관 및 소인수 학급이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는 소인수 학급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이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소인수 학급은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 제공, 유아 1인당 충분한 놀이 공간 확보, 교사-유아 간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또래 간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제약, 협동 놀이 기회 제한으로 인한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전략 습득 기회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소인수 학급 운영 현황 및 어려움 파악을 위한 전국 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반한 소인수 학급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임.

- 정책 설계 방향

- 1) 소인수 학급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

소인수 학급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소통 기회 확대, 소인수 학급 프로그램 및 공간 공유 모델 구축, 지역 내 영유아교육기관 간 공동 놀이 및 교류 활동 기회 확대, 소인수 학급 운영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소인수 학급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

- 2) 소인수 학급 유아들의 사회적 경험 확장 방안 모색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정 규모의 또래 집단 놀이 경험 제공, 연령 간·연령 내 공동 놀이 기회 확대, 소인수 학급에서의 유아 놀이 지원 관련 교사 연수,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사례집 개발, 소인수 학급에서의 사회적 경험을 지원하는 놀이 및 활동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3) 교사 지원 및 기관 역량 강화

소인수 학급 담임 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공,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급 운영 매뉴얼 개발, 지원 인력 배치, 소인수 학급 운영 컨설팅 체계 구축, 소인수 학급 상황을 반영한 예산 분담 기준 및 행·재정 지원 방안

‘따뜻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교육 어젠다

박수경 부회장 | 한국유아교육학회

어젠다 1: 유아가 행복한 출발

• 근거

-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중심에 놓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 더 나은 유아교육을 만들어가는 국가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함.
-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 단일 부처 중심 추진 기반만 마련된 채 세부 제도 개선은 진행되지 못한 상황임.
- 그동안 진행된 유보통합 추진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유아의 행복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 정책 설계 방향

- 유아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제 강화
- 생애초기 유아교육과 돌봄의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 격차 없는 양질의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및 환경을 위한 대폭적 지원

어젠다 2: 학부모가 만족하는 출발

• 근거

- 양육 환경과 교육 생태계 변화로 맞벌이 가정의 일상화 및 비 취업모의 기관 이용 희망 증가
- 저출생으로 인해 귀한 한 자녀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학부모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과 돌봄 요구
- 부모의 양육 어려움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 저해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정책 설계 방향

- 생애 최초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만족 강화
- 방과 후 안심 돌봄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 전문 상담 및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학부모 통합 상담 지원 정책 마련

어젠다 3: 교사에게 공평한 출발

- 근거

- 유보통합에 의한 학교 체제에 적합한 교원 전문성 확보
- 학교체제에 적합한 양성기준과 초·중등 교원 자격과 계열성을 같이 하는 교사양성체제 구축 필요
- 그동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토대로 지금의 한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존재
- 초·중등 교원과 차별을 두지 않는 유아교사 지원 정책 필요
- 체력 및 감정 소모가 많은 유아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 여건 조성 및 복지 정책 요구

- 정책 설계 방향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제도 통일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 교사의 전문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소
- 유아교사를 위한 처우 및 복지 개선 정책 추진

어젠다 4: 지역사회가 단단해지는 출발

- 근거

-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의 유아교육 수요 부족 및 교육환경의 질 저하 발생 예상
- 1명의 유아라도 배우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중요시하는 패러다임 필요
- 생애초기 교육 및 돌봄 지원은 지역사회의 상생과 연계

- 정책 설계 방향

- 인구소멸 예상 지역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중 지원 정책 마련
- 유아교육 재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 재정 보조
- 인구감소 대비를 위한 농·어·산촌 등의 학부모 지원 정책 마련
- 거주지별 ‘웰빙육아데이’ 제도를 도입하여 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지역사회 박물관, 축제, 공원, 병원 등을 방문할 수 있는 웰빙 바우처 지원

어젠다 5: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

- 근거

- 미래사회를 향한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며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에 유아교육도 포함되어야 함.

- 정책 설계 방향

- 디지털 유아교육 행정 업무 시스템 지원
-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미래형 유아 교실 설비 지원
- 생애 맞춤형 에듀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형 연구 지원

아동학회 핵심 어젠다

신나나 부회장 | 한국아동학회

어젠다 1: 지나친 영유아 사교육 방지

• 근거

- 지난 3월에 발표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¹⁾에 따르면, 2024년 7~9월 동안의 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 5천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유아의 47.6%가 주당 평균 5.6시간의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건복지부(2024)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은 30.4%(중복 응답 포함)로 2018년 대비 증가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사교육의 저연령화가 심각하며,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에의 노출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교육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부모의 교육열과 경쟁 중심 문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기관 내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이나 발달을 지원하는 충분한 놀이 기회 부족 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 및 행동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김은영 등, 2024), 영유아기 사교육 의존 완화 및 놀이 중심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정책 설계 방향

- 어린이집·유치원 내 과도한 특별활동 관리 및 기준 정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운영 중인 특별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지침을 마련하고, 특별활동 운영 기준 마련 및 평가제 연계를 통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 모니터링 및 규제 기반 마련: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함.
- 부모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과 과도한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함. 또한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사회적 인

1) 이 자료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식을 확산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함.

- 놀이·체험 기반 공공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영유아 놀이 지원 인프라를 확대함.

어젠다 2: 디지털 시대 영유아의 정신건강

• 근거

- 영유아기의 미디어 이용 증가와 조기화: 보건복지부(2024)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8세 아동의 여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1시간 이상 사용비율은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 대비 크게 증가함.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있음.
- 과도한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발달적 결과: 영유아기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수면문제, 주의집중 저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감소, 언어발달 지연, 짜증과 불안 등의 정서문제, 조절능력 저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Swider-Cios et al., 2023).
- 미디어의 양면적 특성: 미디어는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호작용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Swider-Cios et al., 2023). 따라서 연령에 따라 미디어 노출 여부나 노출 시간 기준 설정, 연령에 맞는 콘텐츠 선택, 미디어 사용 제한 규칙, 부모와의 공동 이용 강조 등 건강한 미디어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디어 이용의 양과 질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특히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중재 방식은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Swider-Cios et al., 2023).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소홀히 하는 행동인 부모의 퍼빙(phubbing)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보고되고 있음(전예림, 최미경, 2025).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설계 방향

- 연령에 적합한 미디어 사용 기준 마련 및 보급: 영유아 연령을 고려한 미디어 노출 여부, 미디어 노출 시간, 콘텐츠 유형, 이용 방식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가정과 보육·교육 현장에 보급함. 아울러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한 디지털 윤리 및 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함.
-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부모의 인식 개선과 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고 보급함. 특히,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퍼빙(phubbing) 등 부정적 디지털 행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

- 놀이나 상호작용 중심의 대안 환경 제공: 영유아가 미디어 외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충함. 특히 부모가 자녀와 미디어 사용 외 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등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 기반 활동을 활성화하여 상호작용 경험을 지원함.
-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신건강 지표 조사: 영유아기 미디어 사용 특성과 정신건강 상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 정신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디지털 초기 경험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추진: 영유아기의 미디어 경험이 학령기 이후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설계하고 추진함. 이를 통해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함.

어젠다 3: 영유아기 건강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

• 근거

- 영유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수면은 모든 발달 영역의 중요한 기반이 됨. 그러나 국내 영유아의 수면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한국의 영유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나 서구 국가보다 수면 시간이 짧으며(Mindell et al., 2013), 낮잠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Ahn et al., 2016).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47%가 자녀에게 수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른 발달상의 어려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임(Ahn et al., 2016). 이는 이 시기 수면문제가 방치되거나 만성화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함.
- 유아기 건강한 수면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발달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의 조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영유아기 수면 관련 정책 설계시에는 수면이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발달을 지지하는 기반 환경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설계 방향

- 가정 중심 수면환경 개선 지원: 부모를 대상으로 수면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면습관(수면위생, 일정한 수면시간 유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가정 내 수면환경을 적

극적으로 지원함.

- 어린이집·유치원의 수면환경 기준 강화: 낮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평가인증제 등 관련 제도 내 수면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함.
- 공공 캠페인 및 정보 제공: 수면을 타 발달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한 수면이 발달의 토대'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함.
- 영유아기 수면 실태 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영유아기 수면의 양, 질 수면 패턴, 수면환경 등에 대한 국가 수준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함.

어젠다 4: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근거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0~1세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급, 육아휴직 권리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제와 같은 제도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지영, 허가영, 2025), 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높지 않아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 가족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장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양육친화적 문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가정 유형과 근로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와 더불어, 양육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적, 사회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정책 설계 방향

- 가족친화제도의 실질적 이용 촉진: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제도 사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상 보호장치를 강화함.
-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근로 환경을 고려한 정책 정비: 다양한 가족 유형에 기반한 맞춤형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및 후속 연구 강화: 양육참여와 관련된 제도의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어젠다 5: 교사 근무환경 개선

• 근거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은 영유아의 삶의 질과 발달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됨.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되며, 이는 곧 영유아의 안전감 형성과 긍정적 발달로 이어짐.
- 교육부(2025)의 「2024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42.9%가 신체건강 문제, 22.6%가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거나 겪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교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교사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책 설계 방향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 마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신체적 건강을 위한 환경 개선: 교사를 위한 전용 휴식 공간(교사 휴게실 등)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함. 또한 교사의 신체 특성에 맞는 교사용 가구(책상, 의자 등)를 배치하도록 기관의 환경 기준을 개정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교사 대상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사 간 지지체계(슈퍼비전이나 멘토링 등) 구축함.

참고문헌

교육부(2025). 2024 보육실태조사.

김은영, 구자연, 김지원, 김혜진, 김재철, 김종근, 조숙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24-13)**. 육아정책연구소.

라지영, 허가영(2025).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9(1), 51-74.

보건복지부(2024).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예림, 최미경(2025).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기 자녀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2), 199-223.

Ahn, Y. M., Williamson, A. A., Seo, H.-J., Sadeh, A., & Mindell, J. (2016). Sleep patterns among South Korean infants and toddlers: Global comparis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1, 261-269.

Mindell, J. A., Sadeh, A., Kwon, R., & Goh, D. Y. T. (2013).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sleep of preschool children. *Sleep Medicine*, 14(12), 1283-1289.

Swider-Cios, E., Vermeij, A., & Sitskoorn, M. M. (2023). Young children and screen-based media: The impact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of parental mediation. *Cognitive Development*, 66, 101319.

2025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데이터로 보는
영유아의 삶과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